

300자로 hiphot 섭취하는 스낵뉴스



추억 속으로 사라지는 '문방구'



2020년 코로나 초기때도 버텼던 문방구 모습.



제19회 곡성 심정축제 현장에 추억의 문방구가 마련됐다.

학창시절 기억 속에 가득 남아있는 것이 있다. 친구들과 하교 후에 문지방 닦듯이 다닌 '문방구'다.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은 학교생활 중 대부분은 문방구에서 지낸 추억들을 떠올릴 것이다. 이렇듯 추억은 우리에게 많은 감정을 전해준다.

프랑스 작가 생트 비브는 '시간은 흘러 다시 돌아오지 않으나, 추억은 남아 절대 떠나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요즘 학교 앞이나 골목길 사이에 학창시절 추억의 상징인 '문방구'가 자취를 감추고 있다.

문방구가 사라지는 이유로 △대표적 대기업인 다이소의 골목상권 확장 △일선 학교에서 교육청 지원을 받아 학습준비물을 최저가 입찰을 통해 일괄 구매하고, △대형 e-커머스(쿠팡 등) 문구류 최저가 판매 등을 꼽고 있다. 문구점이 사라지면 학생들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사랑했던 문구용품들이 사라지게 된다.

또한 부모님 세대에서 즐기던 추억들도 사라지고, 아이들이 스스로 준비하며 챙겨갔던 준비물을 학교에서 다 챙겨주기 때문에 자기주도성도 떨어진다. 또 획일화된 문구용품으로 아이들의 창의성도 소멸될지 모른다.

#SnackNews #사라져가는문방구 #이주영기자 #최홍은편집디자인



독자투고

지진,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니다

지난 2월6일 튀르키예 동남부 가지안테프 인근을 강타한 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 전 세계적인 애도의 물결이 일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는 여진으로 피해를 보고 있으며 누군가는 언제 올지 모르는 구조대를 기다리며 울부짖고 있을지 모른다.

우리나라는 과연 어떠한가? 크고 작은 지진을 겪으며 이제 우리도 결코 지진으로부터 안심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 2016년 경주에서 규모 5.8, 2017년에 포항에서 규모 5.4의 유례없는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2021년 12월에는 제주도 서귀포시 해역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해 전남과 광주, 전북과 경남 등에서도 진동이 감지될 정도였다. 이는 지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경각심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진으로부터의 위협을 막기 위한 국가적, 개인적 노력

의 중요성을 증대시켰다. 지진피해가 단순히 타국의 일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나라도 지진 발생에 대비해야 할 때임을 체감하고 있다.

재난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특히 지진은 예측이 불가능한 미지의 영역이며 한순간에 엄청난 규모의 피해가 생길 수 있다. 튀르키예 지진 사태를 잊지 않고 국가와 개인이 하나 되어 대비한다면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도 맞닥뜨렸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고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이요한 <북부경찰 경비과 경장>

쌀값 하락... 쌀 제품으로 위기 넘기자



취재수첩

조진웅

전남취재부 기자
jinyoung.cho@jnilbo.com

전남도내 소상공인들이 쌀값하락에 따른 대안으로 다양한 쌀 관련 제품을 개발, 판매에 나서고 있다.

목포·남악에서 떡까페를 운영하며 신안·무안에서 생산된 쌀을 사용하는 '떡이야'와 전남산 쌀만을 사용해 누룽지차, 쌀과자 등을 생산하고 있는 순천 '쌍지떡'이 대표적이다.

떡이야 카페는 신안·무안지역 쌀을 연간 60톤 이상 사용하고 있으며 쌀가루를 활용한 간식용 제품 생산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 상생을 위해 장애인을 채용해 운영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순천 쌍지떡은 누룽지차·쌀과자 등을 판매하며 쌀 사용 확산을 위한 신제품 누룽지차 개발에 착수했다.

두 업체가 전남쌀만을 고집하고 있는 이유는 쌀값하락에 시름하는 지역 농가들에게 보탬이 되기 위해서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쌀(상품) 20kg 도매가격은 지난달 월평균 4만6909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2% 떨어졌다. 쌀 가격이 지난 2021년 11월 전년 동월 대비 1.4% 하락으로 전환한 뒤 지난 1월까지 15개월 연속 하락세다. 쌀 가격 하락 원인은 지난해까지 2년간 풍작으로 수확량이 늘어난 데다 소비자들이 밥을 적게 먹으면서 수요 감소가 맞물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행히 유통제조 대기업 등에서도 쌀 사용·소비 확산을 위한 쌀 가공 신제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오비맥주는 2021년 '대한민국 대표라거 프로젝트'로 쌀로 만든 맥주를 내놨다. 탄산감 위주의 기존 맥주와 달리 쌀을 함유해 풍미, 향을 모두 살린 부드러움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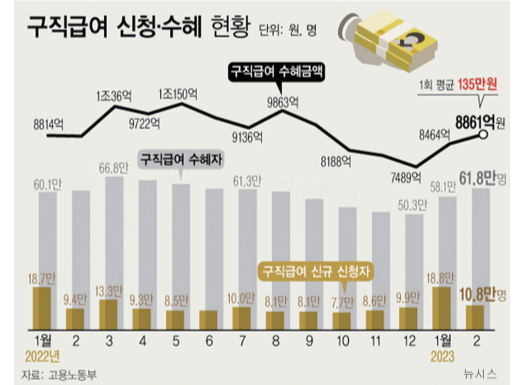
파리바게트는 지난 1월 '우리쌀 설 선물세트'를 출시했다.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으로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식품부가 개발한 신제품 가루쌀을 원료로 사용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최근 '블랙 햅쌀 고품라떼'를 선보였다. 국내산 흑미를 사용해 출시 한달만에 누적 판매 50만잔을 넘기며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정부도 쌀 활용도 높이기엔 나섰다. 수입밀을 대체하고 가루쌀 육성사업을 위해 aT가 가루쌀제품개발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하는 등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쌀·곡물을 사용한 전통 간식을 찾는 손길도 증가 추세다. 이마트가 곡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누룽지 상품을 선보인 결과 지난 1월부터 2월 15일까지 약과 14%, 떡 24%, 모나카 23%, 누룽지 37% 등 전년 대비 매출이 늘었다. 홈플러스는 약과 72%, 떡 591%, 모나카·빵튀기 430%, 식혜·수정과 44%로 매출이 경중 뛰었다.

선조들은 '농자지천하대본'이라며 농업을 중요시했다. 쌀값하락에 따른 농가의 시름을 덜기 위해서는 쌀 관련 다양한 제품을 개발, 판매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와 소비자 모두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아야 할 때다.

그래픽으로 보는 세상



HAPPY MEMORIES 롯데시네마 총창로관

▶ 전 편 천연가죽 리클라이닝 소파석 (K/물석보유)
▶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스톤다마켓 총창로점 062-222-7733

주차장 안내

▶ 전용주차장 <주간&야간> 신동아 주차장 3시간 무료
- 운영시간 : 첫명부터 마지막 영화까지 !!

▶ 제휴주차장 <주간&야간> 동아주차장, 파레스주차장 3시간 무료
- 운영시간 : 오전 09:00 - 마지막 영화까지 !!

▶ <주간> 황금주차장 3시간 무료
- 운영시간 : 오전09:00 - 오후20:30까지

※ 3시간 무료 주차이유, 추가요금이 발생합니다.

롯데시네마 총창로관

1관	대외비
2관	스즈메의 문단속
3관	서치 2/카운트
4관	대외비/명동이
5관	더 퍼스트 슬램덩크/콜 제인
6관	스즈메의 문단속/크리드 3
7관	뚝뚝뚝/6번 칸
8관	스즈메의 문단속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 앤티맨과 와스프:퀵템메니아 바다 탐험대 옥토포닉 육지수호 대작
9관	앤티맨과 와스프:퀵템메니아

광주광역시 동구 총창로안길 12

대외비

3월 1일 극장 대개봉

명동이

3월 1일 극장 대개봉

보약, 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한약방

미세먼지(기관지 보호) 예방식품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5만원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주문판매)
※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예금주 박주환)

무릎 관리 / 활기찬 삶! 산수유두충 60포 ▶▶ 12만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 062)369-9227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평안, 음식조절입니다.